

「한국불화 화기집」 펴낸 인턴뷰 홍윤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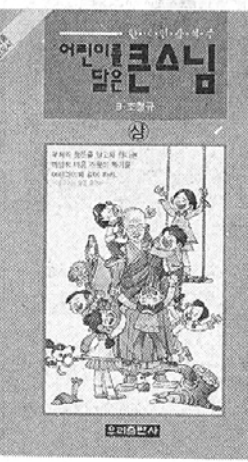


#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 석주스님 일대기 ‘동화’로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오던 석주스님의 삶을 동화체로 엮은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이 우리출판사에서 나왔다. 지은이는 동화작가인 조철규씨.

생존해 있는 스님의 전기를 동화체로 펴내는 처음있는 일이며, 특히 범어집 한글 남김도 거추장스럽게 여길 정도로 소탈하게 살아온 석주스님의 삶을 다루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바른

관세음보살처럼 우리들 삶에 스며드는 스님의 면모를 살려 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석주스님의 어린이 사람과 효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다. “언제나 부처님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 깨끗이 하기를 어린



이 시는 편양(鞭羊, 1581~1644)대사가 최생(崔生)이라는 선비에게 준 것이다. 조선조의 고승대덕은 어느 분이냐 당시의 선비들과 격의 없는 사람으로 호불의 방편을 삼았다. 편양대사도 서산대사의 뛰어난 제자의 한 사람으로 스승이 누렸던 당세의 명성에 자신의 탁월한 도력으로 당시의 공경 대부와 폭넓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사의 비명을 당시 재상이었던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가 썼고, 행장을 곁한 비문을 월사의 아들인 이명(李明)이 쓰고 있으며 대사의 문집인 편양집의 서문을 동주 이민구(東洲 李敏求)가 쓰고 있다. 이런 점만 이루어 보아도 그가 생전에 교류했던 인물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유학자들이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위 시에서 최생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시어에 반하여 유가로서 인정될 만한 선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은 산 속에 병들어 있는 한발 중이지만 그대는 조주

## 불심시심 <30>

한 번 웃는 뜻은

機也嶼嶼一病衲	나는 아미산에 병든 한발 중이고
(기야이일병남)	
我公應是學湖州	그대는 응당 한되지 배우는 선비
(아공응시학조주)	
雲窓一笑無窮意	구름 창가 한 번 웃는 한 없는 뜻
(운창일소무궁의)	
白月青天萬古秋	푸른 하늘 흰 달 만고의 가을
(백월청천만고추)	

## 생존 고승 이야기 동화구성 첫 시도 역경·어린이 포교에 헌신한 삶 드러내

삶을 제시하는 어린이 흔치 않은 현실에서 불교계의 큰스님들을 발굴해 어린이책으로 엮었다는 점에서 불교출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념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역경이며, 교육 또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한 마음씀씀이다. 자칫 전기물이 삶의 자취를 뒤따르는 연대순의 기술에 머물러 재미와 현실성을 잃게 되지만, 이 책은 가족과 이웃들이 바른 삶을 찾으려 할 때마다

이와 같이 하라. 망상과 온갖 집착을 멀리 떠나 마음가는 바를 걸림 없이 하라. 아울러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할애해 효에 대한 석주스님의 지론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범당출입 합장 공양 등 사찰예법과 보살계 일주문 등 불교용어를 본문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불교에 낯선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있다.

정된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의 지은이 조철규씨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같은 스님의 수행을 살펴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며 “어린이 된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손에 들려줘 ‘할 나위’나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 ‘여시아문’ 불서전문서점 자리매김 개점 1년...3만권 보유·통신판매 ‘호응’

최초의 불서전문서점 ‘여시아문(如是我聞 737-0695)’이 지난 달 23일로 개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여시아문은 5천여종 3만권의 장서를 보유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서는 물론 사상·철학 등 불교관련서적을 전시·판매하는 최대의 매장으로 성장했다. 이와함께 컴퓨터 검색기능을 갖춰 저자 또는 출판사 등 불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도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 실시 매일 불서 정보지 ‘여시아문’ 발행 등 독자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회의 전담과 불교의 과제(현응·선우도량 사무처장)를, 시론은 ‘사찰소장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제안’(박도화·동대박물관 연구원)을 실었다. 선우도량 대표선우 도법스님은 권두언을 통해 한국불교 승단의 제명제는 △대비원력의 문제의식 확립 △출가정신의 생활화 △불교세계관에 입각한 신념 구축이라고 밝히고 결사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학업변상도 전80장 민족사 영인본 보급

민족사는 해인사 장경각 소장 화엄변상도 전80장으로 액자나 족자 병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인본으로 펴내 보급하고 있다. 화엄변상도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대승불교의 장엄한 세계관을 실한 화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원본은 우리나라에만 전해지고 있다. 허실집은 해인사 돌원장 종진스님이 집필했다.

### 선우도량 7호 배포 수련결과 지상중계

이번호에는 지난 3월 진행된 ‘교단의 미래와 결사운동’ 주제의 제8회 수련결과 발제문과 논평 토론내용을 비롯 3.29법난, 4.10 승려대회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지상중계했다. 난단으로는 ‘21세기 한국사

## “일연스님 뛰어난 시인이었다”

高大 고경식교수, 삼국유사 ‘讚’ 연구 논문발표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에는 49수의 찬(讚·어떤 글귀에 대한 제자의 찬미)이 실려 있다. 이중 2수는 인용된 것이고 나머지 47수는 일연이 직접 지은 것이다.

이들 47수의 찬을 중심으로 일연의 불교관과 문학성을 밝힌 논문이 나왔다. 논문은 고려대 고경식교수가 최근 내놓은 <고려시대 한문학연구(1)>(집문당판)에 실렸다.

고교수는 <삼국유사>에 담긴 찬들을 통해 △일연은 뛰어난 시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민족적 자존심의 고양을 위해 유사에 승려로서의 호국불교사상, 역사적 찬술자로서의 민족원형의 구현의식, 불국토사상 등을 심본 녹여넣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생교화를 목적으로 신이성, 불국토사상, 재래신앙을 두루 수용했으며 △그의 불교관과 민족의식은 ‘유사’의 기사 선별에 영향을 주었음을 물론 47수의 찬을 통해 보다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 “만해 시 서정 주체는 여성이미지” 조성면씨, ‘한용운 재론’서 아버지 상실등 제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스님의 여성주의와 불교사회주의를 집중 조명했다. 조씨는 “만해의 시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즉 남성이 사라져 버리고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버림받은 여성이 서정주체로서 등장한다”며 이는 “아버지 세계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 즉 스님의 실제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임신양명을 품었고, ‘상징적인 아버지(조국)’는 외세에 의해 무기력하게 짓밟혔다는 의미이다. 조씨는 “만해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출가 이전시기에 대한 정확한 작가 연보의 작성문제, 특히 만해의 출신과 가문 그리고 아버지 한응준(韓應俊)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불교사회·사원경제사 연구자료로 활용되길”

30년동안 불화 5백 78점 확인 작업

홍교수의 이번 책은 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불화연구의 산물이다. <한국불화의 연구> <고려불화의 연구>를 펴내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578점의 불화를 일일이 확인하고 화기를 모아두었다. 화기는 단순한 불화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신앙사, 불교사회사 불교경제사 연구의 1차자료 역할을 한다. \*시주절(施主契, 시주자목

으로 삼아 시기별로 화기의 기재양식과 불화조성에 참여했던 각기 소임들의 역할과 명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아울러 홍교수는 “불교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문화재를 ‘불교’라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온 계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받아들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니사경화 1백8점 전시 채원식 세예전...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국서화협회회전 및 한국 전통 예술대전, 한국문화대에 술제 등에서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서예가 오담 채원식의 ‘금니사경화전’이 오는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오담 채원식의 회갑자축 사경전으로 채씨의 묵연의 30여년을 검증하는 적색 청색 흑색의 명주위에 순금기부로 경전, 고문, 명구, 불화등을 그린 금니사경 총 1백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영동 나의 소리기행’ 국악·현대악기 앙상블 김영동의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는 ‘나의 소리기행’이 오는 14·15일 오후 7시30분 정동극장에서 공연된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 김영동씨는 초연, 먼길, 방황, 어디로 갈까, 조각배 노래 등을 연주한다.

**불교가득, 법화가득**

##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개점 1주년,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권잡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앞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